

# Art

아트인컬처  
July 2013

la Biennale di Venezia/  
리뷰\_백과사전식 궁전  
인터뷰\_국가관 BEST13

Artist/  
피터 짐머만, 코헤이 나와

Essay/  
왜, 다시 야나기 무네요시인가  
한국미술에서 '방법'의 문제

# KOREA

## 한국관 전체를 감싼 빛의 보따리

유리와 철골로 구성된 한국관은 자연광이 내부로 들어오는 투명한 건물이다. 나무가 우거져 있고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열린 구조다. 어떤 작품도 돋보이기 힘든 이 좁고도 난해한 공간에 맞닥뜨렸을 때 많은 큐레이터들이 난색을 표한다. 처음 커미셔너에 선정되었을 때, 나 역시 이런 공간의 특성에 대해 많이 고민했고, 결과적으로 건축적 단점을 역이용하여 밖의 환경을 안으로 들여오고, 반대로 안의 것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로 건축적이면서도 비물질적인 전시로 컨셉트를 잡게 됐다. 이런 의도를 현실화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작가의 역량에 달린 일이었다. 김수자는 오브제 하나 전시되지 않은 텅 빈 공간임에도, 비어 있는 동시에 꽉 찬, 안과 밖을 향해 무한히 확장하는 환상적인 공간을 만들어 냈다. 건축적이고 개념적인 컨셉트를 매우 짧은 기간 동안 구체화시켜야 했는데, 작가의 노련함과 오랫동안 쌓은 예술적 경험이 이번 기회에 제대로 빛을 발했다. 김수자는 형식과 사유 모두에 능란한 작가이고, 특히 이번 전시에서 자연에 존재하는 통상적인 요소를 새로운 맥락의 경험으로 제시했다.

김수자는 유리로 된 건축의 표면을 반투명 특수 필름으로 뒤덮어 건물 자체를 '보따리' 개념으로 재해석했다. 한국관 내부는 무지개 스펙트럼과 작가의 숨소리로 채워진다. 빛과 소리의 공간 이면에는 완벽한 어둠과 침묵의 무반향실이 자리하고 있다. 관객은 외부의 모든 빛과 소리가 격리된 작은 공간 속에서 오직 자신의 숨소리, 심장소리와 마주할 수 있다. 현대 도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완벽한 어둠과 적막은 인간 존재의 가장 원초적인 생명의 시작과 끝, 즉 죽음에 대한 명상의 길로 안내한다.



김승덕  
한국관 커미셔너

나는 1999년에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더'로, 망명한 작가로 스스로 생각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관에서 전시하게 되면서 모국과의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것 같다. 나로서는 가장 명예롭고 감동적인 순간이다.

지난 30여 년의 작업 여정 중 '보따리'는 나의 핵심적인 개념을 차지해 왔다. 이불보를 삶의 프레임으로 설정하여 그것을 싸고 펼치면서 신체, 자아와 타자, 생과 사, 음양의 관계를 둘러싼 실존적 인식론적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다. 이 전시는 내가 초기작부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천착해 온 '보따리' 개념의 연장선상에 있다. 나는 이번 전시에서 한국관의 전물 자체를 거대한 보따리로 상정했다. 한국관 공간 전체를 보따리 삼아 이 공간을 빛과 소리, 어둠과 침묵의 보따리로 바꾸고자 했다. 이 공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요소들은 내가 과거부터 탐색했던 주제들과 맞닿아 있다. 영혼과의 만남, 자아와 타자, 인간과 자연, 어둠과 빛, 남과 여 등 그간 탐색해 온 개념적인 관계형들이 이 전시에서는 빛과 반영, 날숨과 들숨, 허밍 등의 요소를 통해 비물질적인 방향으로 진화하도록 표현했다.

나는 이번 전시에서 한국관 건물이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의 해결책으로 바꾸어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전시에 도입된 것이 특수 필름과 거울이었다. 나는 유리벽을 감싼 필름을 통해 자연과 빛을 내부로 들여옴으로써 한국관을 전혀 다른 공간으로 변형시키고자 했다. 건축 표면에 입힌 필름은 결국 거대한 보따리의 '패브릭'인 셈이다. 허의 공간을 최대한 건축의 피부까지 밀어낸 것이다. 또 한편으로 몸과 공간의 관계에서 충분한 깊이와 넓이를 설정하기 힘든 건축의 구조적 문제는 거울로 풀었다. 바닥과 천장의 거울을 통해 내부 공간이 무한히 반복되며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번 한국관은 하나의 '몸'이기도 하다. 빈 공간을 나의 숨소리로 채우는 사운드 퍼포먼스로 한국관 자체는 나의 몸이자 숨쉬는 보따리가 된다. 2004년에 처음 <위빙 팩토리> 작업을 시작했을 때, 그 비어 있는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내 몸의 숨소리를 인지하기 시작했고, 곧 우리의 숨이, 인간의 몸 자체가 '재봉 공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번 전시 공간을 채우고 있는 이 숨은 내가 입을 벌리지 않고 코로만 숨을 쉰 것이다. 우리의 모든 기관 중에서도 한 기관만을 통해 퍼포밍을 한 것인데, 모든 다른 기관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의 통로를 통해 세계를 들여보내고 내보내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절대적인 어둠의 공간을 표현한 무반향실 <Silence Room>은 작년 여름 뉴욕이 허리케인 샌디로 정전이 되었을 때 겪은 개인적 경험을 계기로 기존 작업의 맥락에 새로운 방향성을 더한 작업이다. <Silence Room>은 절대적 공간, 혹은 무의 공간이다. 혼자 들어가 오랫동안 해매면서 자기 내면으로부터의 끊임없는 반성과 질문을 느끼며 생각해야 하는 공간이다. 관람 인원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기다리는 사람들 때문에 이 방 안에서의 체험을 1~2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더 머무르기를 원한다. 다른 공간에서 다시 보일 수 있다면 좀 더 긴 시간 동안에 관객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수자  
한국관 참여작가

## 한국관 To Breathe: Bottari

커미셔너: 김승덕 / 참여작가: 김수자  
〈To Breathe: Zouz〉 혼합재료 가변크기 2010

